

발표초록 모집(Call for Papers):

2025 세계영상사회학대회 The 2025 International Visual Sociology (IVSA) Association Conference

2025년 6월 25-28일, 아주대학교 및 수원 일대

초록 모집 마감: 2025년 1월 15일(수)

이미지를 넘어서: 시각연구의 역학관계를 고민하기 Beyond the Image: Addressing Power Dynamics in Visual Scholarship

2025 세계영상사회학대회는 영상사회학 및 다양한 학제의 시각문화 연구를 기반으로 한 학술발표, 워크숍, 영화제 및 전시 참가를 위한 발표초록을 모집한다. 이번 세계영상사회학대회는 1) 시각연구의 탈중심성, 2) 비/가시적인 아시아, 3) 영화적 사회학의 렌즈 초점을 다시 맞추기: 한국의 유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시각연구의 역학관계를 조명한다.

기조 연사로는 오프닝에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가, 클로징에 그래엄 길록(Graeme Gilloch) 영국 랭카스터 대학 교수가 확정되었다. 사회학자 조은은 <사당동 더하기 22>(2009)에서 <사당동 더하기 33>(2020)으로 이어지는 다큐멘터리 연작을 통해 도시개발로 인한 강제이주와 빈곤계급의 삶을 시각적 에스노그래피로 담아내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에 형성되는 복잡한 관계성에 대해 성찰해왔다. 그래엄 길록은 국내에서는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2005)의 저자로 잘 알려진 비평가론 및 시각문화이론가이다. 그는 영상사회학자이자 세계영상사회학회 집행위원회 위원이었던 고(故) 질 골딩(Gill Golding)을 기념한 연설 ‘역동하는 영상사회학(Visual Sociology in Motion)’으로 이번 대회 대미를 장식한다.

플래너리 세션은 이번 대회 주제를 다루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시각연구의 탈중심성” 세션에서는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밴드 이날치의 소리꾼인 안이호,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바루흐 고틀립(Baruch Gottlieb)이 연사로 나선다. 안이호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바리데기 이야기를 무용, 국악, 관현악으로 재해석한 <심포카 안은미의 ‘바리’ – 이승편>, 조선소 노동자들의 소리를 영상화한 <야드> 등 사운드와 사회적 주제의 접점을 모색해왔다. 바루흐 고틀립은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며 사진, 영상, 설치 미술 등 시각 예술과 사운드 아트와의 결합을 모색하는 전시를 국내에 지속적으로 소개해 왔다. 두 아티스트의 발표와 논의는 분산된 다른 감각들과의 위계 속에서 시각의 헤게모니에 대한 성찰을 모색하는 이번 대회 주제에 걸맞은 문제의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적 사회학의 렌즈 초점을 다시 맞추기: 한국의 유산” 세션은 세 영화 감독의 작업과 문제의식으로 풍성하게 꾸며진다. 2022년 IVSA 시각적 액티비즘(Visual Activism)상을 수상한 김진아

감독의 미군위안부 3부작은 360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영화로 구현한 미군기지촌의 장소성에 대한 에스노그래피적 접근이자, 사라져가는 장소를 VR기술로 보존하고자 하는 아카이브적 접근을 잘 보여준다. 공동 연출자로 오랜 기간 함께 작업해 온 김동령, 박경태 감독 역시 기지촌이라는 공간에 새겨진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과 기억을 환기시키는 영화적 작업을 해왔는데, 대표작인 <거미의 땅>(2012)과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2019)는 ‘증언이 될 수 없는 증언’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성찰과 실험을 가한다. 이처럼 이 세션에서는 한국의 영화적 사회학, 즉 영화의 형태로 표현된 사회학적 탐구과 성찰의 현황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대회는 영화적 사회학의 다양한 접근과 그 성취를 고찰하고, 앞으로 더욱 본격화할 한국의 영화적 사회학의 전망에 대해 논한다. 이는 사회학 뿐 아니라 영화미디어학, 영상인류학, 커뮤니케이션학, 문화연구, 시각예술 등 다양한 학제의 참여를 통해 더욱 풍부한 논의를 끌어낼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일반 프로그램에서의 발표를 위한 발표초록은 다양한 시각연구 및 시각적 방법을 사용한 사회과학 연구로 응모 받는다. 시각이론이나 시각적 방법을 적용하여 대회 세부 테마들과 관련된 주제를 착안하면 다음과 같은 분야들이 제안 가능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다양한 주제에서 이루어진 연구 발표를 환영한다.

테마	가능한 세부주제들
시각연구의 탈중심성	다중감각 연구, 청각연구 및 소리 문화기술지, 정동이론, 물질문화연구
	예술기반연구(Art-based research), 브리콜라주(bricolage), 디자인적 사고
	참여연구, 실행연구, 사회적 실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어텐션, 디지털 문화기술지
	식민성, 포스트식민성, 탈식민화
	인종/종족, 인종 재현
	젠더, 섹슈얼리티, 퀴어, 교차성
	모빌리티/임모빌리티 (인간, 비인간, 운송수단 이동성)
	포스트휴머니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인류세, 생태위기
불평등, 계급, 사회적 양극화	
비/가시적 인 아시아	전쟁, 국가폭력, 기억
	냉전 아시아, 트랜스퍼시픽 냉전체제 형성
	아시아에서의 디지털 및 기술 매개 폭력, 생성형 AI와 관련한 사회문제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 프로슈머들, 세대 문제
	K-컬처: K팝, 영화, 드라마, 음식, 미용 등
	아시아의 글로벌 및 로컬 스포츠 산업
	아시아의 관광산업: 오버투어리즘, 다크투어리즘, 섹스관광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 아시아적인 도시계획
	아시아의 지속(불)가능성: 쓰레기, 환경오염, 마약, 성매매, 이주의 여성화

영화적 사회학의 렌즈 초점을 다시 맞추기	영화적 사회학의 실험들
	영화적 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과 아시아의 다큐멘터리 실천
	영화적 사회학의 확장: VR영화, 꿈과 내면의 문화기술지 영화, 에스노픽션 영화, AI 생성영화 실험

2025 세계영상사회학대회는 아주대학교(경기도 수원시 소재)를 대회 주 장소로 개최될 예정이다(하이브리드 참여는 받지 않음).

- 개최일시: 2025년 6월 25일(수)– 28일(토) (4일간)
- 개최장소: 아주대학교 및 수원시 일대

초록 제출 방법

모든 발표자는 [EasyChair](#) 학술대회 관리시스템을 통해 영문 250자 이내의 초록을 제출해야 하며, 따라서 제출하기 전에 EasyChair에 계정을 미리 생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15일(수)이며, 대회 공식 언어는 영어이지만 한국어 발표도 신청할 수 있다.

[EasyChair](#)를 통해 제출하는 초록에는 다음의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 발표제목(Title of presentation)
- 발표자명(Name of presenter(s), 2명 이상일 경우 프로그램에 인쇄될 순서로 기입)
- 발표자 소속기관(Organization/Affiliation of the presenter(s))
- 발표자 전자우편(Email address of the presenter(s))
- 발표유형(학술발표, 워크숍 등) 상단에 명기(Type of submission: paper, workshop, etc.)
- 초록(영문, 최대 250자)
- 주제어(Keywords) 3-4개

모든 발표는 그 중심 매체의 유형(논문 또는 시각자료)이 어떤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학술적, 예술적, 과학적, 분석적 가치를 지니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모든 대회 발표자 및 참가자는 [IVSA의 회원](#)이어야 한다. 참가자들은 한 개의 발표에서만 주저자로 발표할 수 있다. 복수의 공동저자로 된 발표의 경우, 모든 저자가 대회 프로그램에 이름을 실기 위해서는 모든 저자가 IVSA의 회원이면서 대회 등록비를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2025년 세계영상사회학대회 수원 개최에 한하여 한국 발표자 및 참가자들의 등록비에 특별 할인을 적용함).

2025 세계영상사회학대회 조직위원회는 패널 및 워크숍 세션의 조직을 위해 접수한 초록들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워크숍의 경우 예년 IVSA 대회들에서는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화 제작 과제를 내거나 편집기술을 가르치는 워크숍들을 개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워크숍은 대회

의 4일 개최기간 중 특정 시간을 배정받아 진행되며, 대회 1일차에 1-2시간 정도의 세션을 진행하거나 대회 사전워크숍(pre-conference workshop)의 형태로 좀 더 긴 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대회 마지막날 워크숍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제작물을 발표하는 세션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다.

비주얼리스타 영화제(Visualista Film Festival) 출품: 비주얼리스타 영화제는 본 연례 학술대회의 부대행사이다. 영화 및 영화 기반의 구성물로서, 사회적 삶의 시각적 차원과 그 기록에서부터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시각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영상사회학의 면모들을 탐구하는 작품들의 응모를 받는다. 영화 출품 응모자들은 자신들의 영화 작품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사회적 맥락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응모하는 영화의 길이나 구성에 제한은 없으며, 비선형적인 영화 기반 창작물이나 인터랙티브 형식의 작품도 응모 가능하다. 영화 제작의 최종적 창작물보다 제작과정에 방점을 둔 영화적 구성물 또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형식 상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자 하며, 세계 각지에서의 응모를 기대한다. 영어가 아닌 자국어로 만들어진 영화는 영어 자막을 수록해야 한다.

모든 영화 응모는 영화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FilmFreeway에 생성된 본 영화제의 채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채널에서 더 자세한 사항 및 안내를 볼 수 있다:

<https://filmfreeway.com/visualistafilmfestival>

비주얼스터디즈 (Visual Studies) 전시 응모: IVSA와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비주얼스터디즈(Visual Studies)는 세계영상사회학대회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연례 전시를 개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접근과 견해들을 교차하여 예술 실천가들과 학자들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본 전시는 ‘시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학문적 지식과 실천의 경계 바깥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집단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을 모색하고자 한다. IVSA회원들, 시각적 방법을 사용하는 사회과 학자들, 예술가들 및 실천가들이 시각적인 것들, 시각성, 그리고 시각화에 대한 실험(이른바 “이미지 너머”로서 청각 및 다른 매체 포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학문과 (자신들의) 예술 사이의 경계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탐구하는 참가자들을 모집하고자 한다. 대회 기간 중 전시 개막, 장소 및 일정은 추후에 확정 공지할 예정이다. 참여 작가들에게는 추후 발행될 비주얼스터디즈(Visual Studies, A&HCI 등재) 특집호에 게재되는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주얼스터디즈](#)는 학술지가 2022년 온라인으로 개최한 전시 [“What is an image?”](#)에서부터 향유해온 장기 구상을 지속하고자 하는데, 다름 아니라 연례 학술대회의 대중제와 연동하여 전시를 큐레이팅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 학술지는 시각적인 것들과 미학적인 것들에 대한 저널의 접근법을 점진적으로 확장해왔고, 저널의 실천과 참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성찰해왔다 (예를 들어, Picture/talks이나 Visual Essays와 같은 투고형식을 개발하고, 영국 리버풀의 [Open Eye Gallery](#)와의 공동기획 특집호를 출간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비주얼스터디즈가 시각적 연구의 다양성을 좀 더 잘 대표하게 만들어주는 반면, 이러한 진화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이라기보다는 포용성, 성찰성, 그리고 저널 편집진 내에서의 실험 등을 목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공동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IVSA의 세계영상사회학대회가 2025년의 비주얼리스타 영화제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점차 집필 중심성이 덜한, 과급력 높은 미디어로 확장되어 옴에 따라, 비주얼스터디즈 전시 기획팀 역시 IVSA가 예술기반 형태의 연구(그 실험적 급진성 여부와 무관하게)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지지를 이어 나가줄 것을 희망한다.

출품 응모 안내:

응모작은 회화(painting), 소묘(drawing), 사진, 예술적 영화, 비디오 설치, 멀티미디어 설치, 퍼포먼스 촬영본 및 라이브 퍼포먼스 등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분야에서도 응모가 가능하다. 또한 시각 이외의 감각과 감각성(들)을 강조함으로써 “시각적인 것”과 그 물질성(들)이 갖는 한계지점들과 정의들을 다루는 작품들의 응모를 환영한다.

모든 발표자는 아래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작품명(Title of contribution)
- 작가명(Name of contributor(s), 전시 프로그램 수록 원하는 이름 순서로)
- 소속처(Organization/Affiliation of contributor(s), 있는 경우에 한함)
- 전자우편(Email address of contributor(s))
- 형식 및 파일유형(Format and file type)
- 치수(Dimensions, 해당시)
-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프로젝터, 사운드 시스템, 조명 등)
- 설명문(영문 250자 이내)
- 작품의 형식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최대 5분 분량의 프리뷰 비디오, 또는 최대 5장의 샘플 사진, 또는 온라인 포트폴리오 링크 등)

응모는 [Google form](#)을 통해 영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응모작은 그 학문적 가치와 작가(들)의 소속 및 출신 학교와 무관하게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심사위원회는 다학제적인 배경으로 구성하며, IVSA 회원, 시각연구자, 아티스트 및 실행가 등에서 초빙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작품의 실험적, 예술적 가치
- 작가/작품이 전시응모 요강(call for contributions)에서 제시된 질문들과 접근들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 작가/작품이 IVSA 세계영상사회학대회의 대주제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시각연구의 지적 전통과 방법론에 관여하고 있지만, 비주얼스터디즈 전시가 세계영상사회학대회의 학술발표나 영화제와는 구분되는 예술 행사라는 점을 유념 부탁 드리는 바이다. 큐레이터들이 확보할 전시공간과 현장에서의 가용 가능한 동선 등에 있어서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응모자들은 큐레이터들과 상의하는 데에 열려 있어야 하며, 필요시 자신들의 작품에 배정된 최종 설정을 수용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은 큐레이션팀의 줄리 파타르-조세(Julie Patarin-Jossec)에게 [patarinjossec.julie\[at\]gmail.com](mailto:patarinjossec.julie[at]gmail.com)로 이메일 문의할 수 있다.

응모 마감시간: 2025년 1월 15일(수)

출품작 확정통보: 2025년 3월 1일.